글동네

2022년 12월 13일 화요일

꿈일기: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나에게 새아빠가 생겼고 미국의 한 목욕탕에 갔는데 사람들이 남탕과 여탕으로 각각 줄 서서 입장 대기를 하고 있었고 나도 맨 뒷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일부가 벌써 벌거벗고 가릴 곳만 가리고 있었다는 꿈을 꾸었다.

시간: 12월 13,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꿈일기: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군대에 다시 가서 전우들과 시내 길을 오르던 꿈, 중공국에서 TV로 마오쩌둥이 나오는 영상을 보다가 마오쩌둥에 대해서 잠깐 비판 한 마디 해서 어느 조선족이 나를 불러 "정신교육"을 당했는데 끝내 김치를 먹으면서 김치가 중국 음식임을 인정하는 것까지 강요당한 꿈을 꾸었다. 결론은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시간: 12월 01,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꿈일기: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

내 컴퓨터 OS가 Windows XP였던 꿈을 꾸었다.

시간: 11월 15,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꿈일기: 2022년 11월 12일 (토요일)

어느 사이비 포교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자신에게 베풀어달라"는 핑계로 허락도 없이 밥솥에서 밥 퍼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는데 내가 "혹시 '마음공부'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었고 이때 직감을 느껴 "당장 나가 달라"라고 해서 사이비를 쫓아내었고 그 후 지인에게 "만일 내가 너네 집에서 너 허락도 없이 밥 퍼고 반찬 꺼내고 하면 기분 좋겠냐" 물었고 그 지인은 "기분이 안 좋겠다" 했고 나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나라 싸가지냐"라고 맞장구쳤던 꿈을 꾸었다.

그리고 오후 5시 49분경에도 꿈을 꾸었는데 휴전선 철조망이 있는 쪽인데 초원이였고 "만일 북한군이 애니 캐릭터를 만난다면?"이라는 실험으로 빔프로젝터로 북한군 쪽에 일본 애니 캐릭터를 홀로그램으로 비추었는데 북한군들이 처음 보는 신문물에 호기심을 가지고 총을 쏴보기도 했고 친구와 하츠네 미쿠에 관한 꿈과 화장실에서 사방에 오줌을 싸갈긴 꿈을 꾸었다.

시간: 11월 12,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1월 8일 화요일

꿈일기: 2022년 11월 7일 (월요일)

야후! 코리아가 부활했다는 꿈, 그리고 눈이 쌓인 날 어느 대머리 청년이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저그 버로우 마냥 땅눈 속으로 꺼졌고 언론은 이걸 자해했다는 식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는 꿈을 꾸었다.

시간: 11월 08,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꿈일기: '22년 10월 15일 (토요일)

PlayStation 3로 <그라디우스 V> 해적판을 했는데 빅 바이퍼가 아닌 뭔가 원형으로 뭉친 기체가 나왔고 기를 모아 화면 전체의 적들을 한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쓸 수 있었던 꿈, 코난마냥 초등학생으로 줄어들었는데 초등학교가 아닌 유치원을 다시 다녀서 어머니에게 초등학교로 보내주면 안되냐고 물은 꿈을 꾸었다.

시간: 10월 15,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

2022년 10월 6일 목요일

꿈일기 모음 (22/04/26-22/10/05)

'22년 4월 26일 화요일 꿈일기
쌀을 안치려는데 세면대에다가 쌀을 안치는 꿈, 그리고 <지옥홍보림 악대리> 영상 중 "성형외과 CCTV" 편에서 나온 악대리가 토하는 장면을 본 꿈을 꾸었다.

'22년 4월 27일 수요일 꿈일기
사양 좋은 컴퓨터로 게임 <사이버펑크 2077>에서 닉네임 설정을 한 뒤 배 타고 이동하는데 어머니가 내가 게임하는 것을 보신 꿈, 코뿔소에 관한 꿈, 열악한 환경요소에 있던 꿈을 꾸었다.

'22년 5월 2일 월요일 꿈일기
계곡으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사촌동생도 같이 왔고 꽃밭에 산책을 하다가 벌에 쏘인 꿈, <티미의 못말리는 수호천사>, <야인시대>의 이정재, 그리고 출근길에 관한 꿈을 꾸었다.

'22년 5월 3일 화요일 꿈요일
M4A1 에어소프트 전동건을 보유한 꿈, 그리고 일요일인데 평일인 줄 알고 출근을 서두른 꿈을 꾸었다.

'22년 5월 6일 금요일 꿈일기
무면허인데 형의 차를 운전, 작은 컴퓨터가 나오고, 대학이 나오고, 쓰레기 버렸다고 교육 조치를 당하고, 곰탱이 알면서놈이 나오고, 태블릿에 Windows XP를 설치한 꿈을 꾸었다.

'22년 5월 23일 월요일 꿈일기
대한민국 국기와 중화민국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본 꿈, 티비에서 공포 영상 "sm666"을 보는 꿈, 오전 7시 30분 출근해야되는데 시골길 같은 곳에서 잊어버린 휴대폰을 찾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참고로 오전 7시 30분은 내가 실제로 출근하는 시간이 아니다.

'22년 5월 24일 화요일 꿈일기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정녕 수학여행 간 곳이 일본이 맞는지 의문이였던 꿈을 꾸었다.

'22년 6월 4일 토요일 꿈일기
고성 시골에 간 꿈, 아이스크림에 관한 꿈, 그리고 모니터가 박살난 꿈을 꾸었다.

'22년 6월 6일 월요일 꿈일기
대한민국 국군 재입대령이 떨어졌던 꿈, 목욕탕이 딸린 개방형 호화 화장실로 갔던 꿈, 게임 <임진록 2: 조선의 반격> 스킨을 적용한 꿈, 그리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나온 꿈을 꾸었다. 공교롭게도 6월 6일은 한국에서 한국전쟁 희생자를 기리는 현충일이다.

'22년 6월 21일 화요일 꿈일기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강요를 하는 꿈을 꾸었다.

'22년 10월 1일 토요일 꿈일기
<프리파라>에 등장하는 키키 아지미(아티)가 납치를 당해 난리가 났고, 나는 구조대 중 일원으로서 초량민국 공공부대 경장(警裝)을 한 뒤 K-2 에어소프트 전동건을 가지고 출동을 하였고, <하프라이프>에 등장하는 보르티곤트들이 적으로 등장하여 전투를 벌였지만 키키 아지미가 스스로 탈출해 나타났고 나는 당황한 상태로 그녀에게 "대체 어디 계셨던 겁니까?"라고 물었던 꿈을 꾸었다.

'22년 10월 5일 수요일 꿈일기
일 하는 곳에 출근 시간 30분 늦자 결국 잘려서 다른 일자리를 구할 생각을 하면서 본래 일 하는 곳에 있던 내 물건을 가지러 가는 꿈을 꾸었는데 우연히 사장님을 만나서 "겨우 한번으로 자를거면 그럼 이전에 맨날 늦던 다른 직원은 왜 안 잘랐느냐"고 따졌던 꿈을 꾸었다.

시간: 10월 06, 2022 댓글 없음:

라벨: 꿈일기